

'소프라노 모녀' 특별한 음악회

15일 전주 치명자산 성지 평화의 전당서 공연

미국의 명문 신시네티 음악대학원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소프라노 박수현양이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고마운 어머니와 함께 고향 전주에서 아주 특별한 음악회를 연다.

음악회는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전주 치명자산 성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다.

소리의 고향인 전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프라노 박수현양은 2021년 미국 맨하튼, 메네스, 뉴 잉글랜드, 피바디 등 유명 음대 11개 대학 성악과 석사과정을 모두 장학생으로 합격하여 음악성을 인정 받았으며 현재 음악공부는 신시네티 음악대학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학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공연에서 박수현양은 어머니인 소프라노 송애란 선생님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테너 루디 박 교수를 모시고 코로나로 인해 지친 전주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아주 특별한 음악회를 선보인다.

이날 공연에서 '행복'을 주제로 다양한 오페라 아리아와 한국 가곡 등을 수준 높은 음악으로 구성하여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선사한다.

1부 첫 번째 무대는 소프라노 송애란 선생님의 독일가곡 '행복'과 요한 스트라우스의 오페라 <박쥐> 중 '친애하는 후작님', 두 번째 무대는 소프라노 박수현양의 푸치니 오페라 아리아 <리보렌> 중 '내가 거리를 걸으면'과 구노의 오페라 아리아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 세 번째 무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테너 루디 박 교수의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



송애란

박수현

고'와 한국 가곡 '미중'으로 구성되어 선보인다.

2부 첫 번째 무대는 소프라노 박수현양의 도니제티 오페라 아리아 <돈 파스칼레> 중 '그 눈빛이 기사를 사로 잡았지'와 소프라노 송애란 선생님의 오페라 <호프만 이야기> 중 '인형의 노래', 두 번째 무대는 소프라노 박수현양이 부르는 푸치니의 오페라 아리아 <토스카> 중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와 최영섭 작곡 '그리운 금강산', 세 번째 무대는 두 모녀가 함께 부르는 모짜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산들바람은 불어오고'와 세 명의 성악가가 함께 하는 이탈리아 가곡 '날 잊지 말아요', '오! 나의 태양'을 헌성 이종창으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박수현양은 '노래를 부를 때 온 세상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하다'는 음악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한일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인문계 공부를 하다 성악으로 진로를 급변경하여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최선을 다해 세종대학교 음악대

학 성악과에 담담히 합격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꼭 부러지게 개척한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박수현양은 앞으로 전복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성악가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이 예상되는 기대주다. 이탈리아 베니노 질리 음악원의 학과장이던 전주 출신의 소프라노 전소는 교수는 우연히 고3 시절에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성악을 전공하도록 적극 추천하였고, 만 19세에 박수현양은 베이징 국제 콩쿠르에도 도전하여 최연소로 입상하는 등 성악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도 탐내던 인재이기도 하다.

소프라노 송애란 선생님은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를 졸업한 후 중등교육에서 31년째 음악교사로 재직하며 생활이 어려운 원도심 학교의 중학생 기명과 함께 방과 후 현악 오케스트라부를 조직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전북중등음악교사 합창단장으로서 전북 음악교육에도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음악회는 내레코리아의 56번째 연주회로 진행하게 되며 김생기 대표는 아시아의 파린 전주 클래식 공연이 항상 열리는 고장이 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빛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음악 꿈나무인 소프라노 박수현 양과 평생 음악교육을 통해 지역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는 송애란 선생님이 펼치는 이번 음악회가 코로나로 지친 전주 시민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연주회에는 변호사 박민수 법률사무소, 서정우 삼익피아노, 온골진 식혜, 필 컨퍼티가 후원 협찬한다. /김재훈 기자

마이스 기반 조성 · 경쟁력 강화 탄력

전북문화관광재단, '지역 MICE 산업 미팅테크놀로지 확산' 공모사업 선정

전북문화관광재단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한 '2022 지역 MICE 산업 미팅테크놀로지 확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2억 1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MICE 기반을 마련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관광 재개 대비 미팅테크놀로지 대응 및 지역 확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전국 12개 '마이스뷰로(컨벤션뷰로)'를 대상으로 한 경쟁에서 재단을 비롯한 총 5개 지역의 'MICE 뷰로'가 최종 선정됐다. 재단은 국제 행사 개최 시, 기획 단계에서부터 운영 단계 그리고 사후관리 단계에 걸쳐 AI 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반, 네트워크 기반 등 다

양한 미팅테크놀로지의 최신 트렌드 기술을 적용해 디지털 행사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한 전북이 갖고 있는 유니크메뉴에 공간스캐닝 3D 맵 기술을 적용해 주최자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메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재단은 관광본부 출범 이후 여러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전북 마이스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063-230-7493)에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혼불기념사업회와 최명희문학관은 8일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혼불문학기행을 진행했다.

혼불기념사업회 · 최명희문학관, 혼불문학기행 진행

혼불기념사업회와 최명희문학관은 8일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혼불문학기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3월부터 혼불 완독 프로그램인 '소शल소शल 혼불 톨아보기'에 참가하며 소설 '혼불' 열 권 읽기에 도전하고 있는 독자들이 전주한옥마을 정겨운 풍경들의 일상이 소설에 품겨 있게 담긴 것을 확인했다.

한들한들 '혼불' 속 장면들을 찾아 나선 걸음은 문학관과 생가터를 시작으로 '600년 은행나무', 승광대, 오목대 · 이목대, 한벽당 · 한벽굴로 이어졌다.

화가이자 문화관광해설사인 김광숙 씨가 각 명소에 얹힌 이야기를 맛깔나게 들려줬고, 수필가 이진숙 씨가 전주한옥마을이 '혼불'의 배경지가 된 이유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와 영화 '공공의 적2', '태어나길 잘했어' 등의 촬영지인 한벽굴을 둘러보며 '혼불' 속 한 부분을

낭독하기도 했다. 노재승(56세 · 전주시 효자동) · 장정은(53세) 부부는 "혼불문학기행에 참가해 영화와 드라마 속 전주를 만나니 20대 신혼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며, "전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고,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에서 전주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김정숙 씨(55세 · 전주시 송천동)는 "전주한옥마을을 많이 왔지만, 막상 자세히 돌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각 장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혼불' 속 구절을 직접 현장에서 낭독하니 감회가 새로웠다"고 말했다.

또한 "혼불"을 더 읽고 전주한옥마을에 오면 더 많은 장소를 쉽게 지나치지 않고 오래 머물러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혼불기념사업회와 최명희문학관은 매년 전주와 남원을 중심으로 한 혼불문학기행과 전국문학관기행을 통해 독자들에게 더 넓은 문학 세계를 소개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문화취약지역 문화예술교육 신규 지원사업 선정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관장 이재정)은 2022년 문화취약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신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완주군 어린이들이 관소리 수궁가를 배경으로 직접 수궁가의 등장인물이 돼 판소리, 연기, 몸짓 등의 워크숍을 통해 창극배우로 성장해 창극을 제

험해 나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또한 성과발표를 통해 무대에서 그간의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4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총 사업비 2억6천여 만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재정 관장은 "판소리와 창극을 더욱 친근

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전통음악에 대한 호감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완주군 및 문화도시지원센터 등과 긴밀하게 연계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7월 매주 금요일 '영화아카데미' 운영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과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전북도지회(회장 나이리)는 도민을 대상으로 7월 한달 간 총 9회에 걸쳐 '2022 영화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 영화아카데미'는 영화배우, 감독, 교수

등 영화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 영화의 미학과 영화연기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7월 1일 배우 이순재, 민성욱 전주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강의가 진행될 예

정이다.

이 강좌는 선착순 50명을 모집하며, 현장에서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영화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